Jour. Fish. Mar. Sci. Edu., 16(1), pp.69～83, 2004 水産海洋教育研究, 16(1), 2004

일반계 고등학교 선택중심 교육과정의 운영 실태 분석

김재춘† · 박소영

(†영남대학교, 부산대학교)

A Study on the Implementation of the Elective Curriculum in Academic High Schools

Chae-Chun GIM† · So-Young PARK

† Yeungnam University,Pusan National University

(Received April 13, 2004 / Accepted June 15, 2004)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examine the implementation of the elective curriculum in academic high school. Elective curriculum of the high school seems to take more important status than that in the 6th national curriculum. The number of elective subjects of the high school increased from 60 different subjects for the 6th national curriculum to 79 different subjects for the 7th national curriculum. In addition, students can make their own courses and have a right to choose the subjects.

In order to ascertain how elective subjects are being implemented and whether students can choose the subjects they wish to learn, this study conducted a national survey. The results of this survey are as follows.

Despite the emphasis of the 7th national curriculum on the elective subjects in academic high schools, the curriculum implementation of elective subjects seems to be unacceptable. In most schools, only two typical courses such as humanities/social sciences and natural sciences courses are being offered for students as elective courses, and the scope of elective subjects students can choose appears very narrow. That's why we need to do research in order to improve implementation of elective subjects.

***Key words**: elective curriculum, the 7th national curriculum, curriculum implementation, high school curriculum*

Ⅰ. 글을 시작하며

선택중심 교육과정은 제7차 교육과정에서 고등학교 2·3학년 과정에 새로이 도입된 것으로, 학생들이 자신의 능력, 흥미, 적성 및 진로에 맞는 과목을 선택하여 이수할 수 있도록 편성·운영하는 교육과정이다. 선택중심 교육과정의 도입이 예고되면서 한편으로 이념상의 이유로 다른 한편으로 선택중심 교육과정의 편성·운영에 관한 이해 부족이나 오해로 인하여(김재춘 외, 2001; 홍후조, 2001) 전교조를 포함한 일부 단체들이 선택중심 교육과정에 반대하거나 적용의 연기를 주장하였다. 그러나 2004년 현재 선택중심 교육과정은 예정되었던

† Corresponding author: 053-810-3121, ccgim@yumail.ac.kr

대로 고등학교 2·3학년에 모두 적용되고 있다.

새로운 선택중심 교육과정이 고시된 이후 이의 편성과 운영 방안에 관한 정책 연구(김수천 외, 2001; 김인식 외, 2000; 김재춘 외, 2001; 허경철 외, 2002; 홍후조 외, 1999)와 교육부 장학 자료(교육인적자원부, 2002a) 및 각 시·도 교육청의 교육과정 편성·운영 지침과 장학 자료의 개발, 그리고 현장 연구들(강원도계고등학교, 2000; 강화여자종합고등학교, 2000; 공주고등학교, 1998; 부산부흥고등학교, 2000, 양재고등학교, 1997; 연수고등학교, 2001; 장유고등학교, 2003; 주문진고등학교, 2000)이 지속적으로 수행됨으로써, 선택중심 교육과정의 편성과 운영에 관한 연구 결과가 축적되었고, 그 결과 선택중심 교육과정에 대한 이해의 폭은 확대되었다.

또한 선택중심 교육과정이 학교 현장에 적용된 시점을 전후하여 선택중심 교육과정의 편성·운영 준비 실태를 파악하기 위한 연구(교육인적자원부, 2002b; 강영석, 2002; 소경희, 2002)를 시작으로, 실제 운영 실태를 파악하기 위한 정책 연구(김재춘 외, 2003; 류방란 외, 2003)도 수행되었다. 가장 최근에 수행된 김재춘 외(2003)의 정책 연구는 당시 선택중심 교육과정이 적용되던 고등학교 2학년을 대상으로 교육과정의 편성·운영 실태를 체계적으로 분석하여 제시하였다.

그 동안 수행된 선택중심 교육과정의 편성·운영에 관한 개인 연구들은 한편으로 선택중심 교육과정의 설계나 실제적 운영 방안을 주로 탐색하였으며(강현석, 2003; 홍후조, 2001), 다른 한편으로 각 단위 학교에서 선택중심 교육과정의 적용을 위해 마련한 교육과정 편제의 특징등을 파악하는 데 관심이 있었다(강영석, 2002; 강현석, 2003; 소경희, 2002). 따라서 현행 학교 현장에서 실제로 운영되고 있는 선택중심 교육과정의 편성·운영 실태를 파악한 연구는 거의 없는 실정이다.

선택중심 교육과정의 편성과 운영의 실태를 분석하고 이에 근거하여 운영상의 문제점과 쟁점을 논의하는 연구는 선택중심 교육과정이 고 2·3학년 과정에 모두 적용되고 있는 현 시점에서 선택중심 교육과정의 질 관리와 학문적 논의의 활성화를 위해 매우 의미있는 일이라 할 수 있다. 이러한 맥락에서 이 연구는 현행 일반계 고등학교 선택중심 교육과정의 운영 실태를 분석하고, 실태 분석에 근거하여 선택중심 교육과정 운영상의 문제점과 쟁점을 추출하여 논의하고자 한다.

이 글에서는 다음과 같은 순서로 전개하고자 한다. 첫째, 선택중심 교육과정에 관한 이론적 배경으로 해방 이후 우리 나라 일반계 고등학교 교과목 편성·운영의 변천과정을 개관한다. 둘째, 현행 일반계 고등학교 선택중심 교육과정의 운영 실태를 분석하여 제시한다. 셋째, 일반계 고등학교 선택중심 교육과정 편성·운영 실태의 문제점과 쟁점들을 구체적으로 논의하고 개선 방안을 탐색적으로 제안한다. 이 연구는 현행 일반계 고등학교 선택중심 교육과정의 운영 실태를 분석·논의하고 개선 방안을 제안함으로써, 향후 선택중심 교육과정의 보다 충실한 운영을 지원하기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될 수 있다.

Ⅱ. 일반계 고등학교 교과목의 편성 · 운영 변천 과정 개관

이 절에서는 제7차에서 새로 도입된 선택중심 교육과정의 특징을 보다 분명하게 이해하기 위하여 해방 이후 우리나라의 고등학교 교육과정에서 교과목의 편성 체제가 어떻게 변화해 왔는가를 분석하고자 한다. 이하 본문에서 제시되는 단위 수들은 인문과정과 자연과정을 중심으로 산정된 것임을 밝혀둔다.

제1차 교육과정(1955~1962)의 교과목은 필수교과와 선택교과로 구분하였다. 학생들은 1학년에서 3학년까지 학년별로 필수교과를 각각 22, 14, 12단위씩 이수해야 했으며, 나머지는 선택교과를 이수하였다. 여기서 주요한 특징은 다음과 같다. 첫째, 선택과목도 필수교과와 동일한 국어, 사회, 수학,

과학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는 사실이다. 다만, 선택과목의 경우, 사회는 세계사와 지리로, 수학은 해석과 기하로, 과학은 물리, 화학, 생물과 지학으로 세분화되어 있다는 점이 다르다. 둘째, 체육, 음악, 미술은 0~6단위를 이수하게 되어 있어, 이들 과목이 학교에서 실질적으로 가르쳐졌을 가능성은 매우 낮을 것으로 보인다.

제2차 교육과정(1963~1974)은 10개의 교과 영역에서 각 영역별로 다양한 과목과 단위 수를 배정한 다음, 고등학교 공통과목으로 104단위, 인문과정의 과목으로 100단위, 자연과정의 과목으로 110단위, 직업과정의 과목으로 104단위를 이수하도록 요구하고 있다. 1학년에서는 공통 과목을 중심으로 운영하고, 2학년 이상에서는 장래의 희망에 따라 과정 선택을 하도록 하였다. 그러나 과정별 선택의 권한은 극히 제한적이었던 것으로 보인다. 왜냐하면 각 과정별 선택 과목을 100단위 이상 이수하여야 하는데, 국가 지침에서 각 과정별로 설치한 과목들의 총합은 최대 110단위 안팎에 불과하여 각 단위 학교에서는 각 과정별로 약 10~20단위의 범위 내에서만 과목을 선택할 수 있기 때문이다.

제3차 교육과정(1974~1981)의 교과 활동은 필수과목과 과정별 선택 과목으로 구분되었다. 필수 과목에는 국가 지정 필수 과목(112~132단위)과 택1, 택2가 가능한 선택 과목(32~42단위)이 있으며, 과정별 선택 과목에는 국가 지정 과목(18~28단위)과 택1, 택2의 선택 과목(22~36단위)이 있다. 여기에서 택1 혹은 택2의 형태로 과목을 선택하는 주체가 누구인지는 분명하지 않다. 교육과정의 단위 배당 기준에 "필수 및 필수 선택 교과목은 과정의 구별 없이 모든 학생에게 공통으로 이수시켜야 하며, 과정별 선택 교과목은 해당 과정 학생에게 이수시켜야 한다"(교육부, 1999; 231)는 문구로 미루어 짐작해 볼 때, 필수 선택 과목 및 과정별 선택 과목들 중 택1, 택2의 주체는 학교로 해석되고 실행되었을 것으로 추측된다. 당시 과목의 결정권은 대부분 국가에 있었으며, 학교의 과목 결정권은 국가 결정권의 약 절반 정도의 수준이었던 것으로 분석된다.

제4차 교육과정(1981~1988)의 보통 교과는 공통 필수과목과 과정별 선택 과목으로 구분되었다. 공통 필수 과목에는 국가에서 지정한 13개의 과목(62~76단위)과 택1, 택2 할 수 있는 과목(10~18단위)이 있으며, 과정별 선택 과목에는 국가 지정 과목(60~76단위)과 선택 과목(30~38단위)이 있다. 이때 과목 선택의 주체에 관한 분명한 규정은 없으나, 운영 지침에 "학생의 과정 선택이나 과목 선택에 있어서는 학생 개개인의 의사가 충분히 반영되도록 하며"(교육부, 1999: 259)라는 문구가 있는 것으로 보아, 제3차 교육과정에서와 마찬가지로 과목 선택의 주체는 학교로 해석되고 실행되었을 것으로 유추할 수 있다.

그런데, 각 과정별로 편성된 자유 선택 교과목의 경우, 운영 지침에 "2개 이상의 과목을 설정하여 학생에게 선택의 기회를 주도록 한다"(교육부, 1999: 259)는 규정이 있어 매우 특징적이다. 당시 0~8단위가 배정된 자유 선택 과목을 학교에서 실질적으로 운영하였을 가능성은 적으나, 이에 관하여 학생에게 과목을 선택할 수 있는 권한을 주었다는 점은 학생에게 과목 선택권을 부여한 효시라 할 수 있을 것이다. 당시 과목의 결정권은 거의 국가에 있었으며, 학교의 과목 결정권은 국가 결정권의 약 1/3 수준이었던 것으로 분석된다.

제5차 교육과정(1988~1992)의 보통 교과는 공통 필수 과목과 과정별 선택 과목으로 구성되었다. 공통 필수 과목의 경우 제3차, 제4차 교육과정의 경우와 달리 학교 선택은 없고 모두 국가 지정의 12과목(84단위)으로 편성되었다. 그리고 과정별 선택 과목의 경우 국가 지정 과목(74~76단위)과 학교 선택 과목(28~34단위)으로 구성되었다. 따라서 당시 학교에서 과목을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은 제3차와 제4차 때보다도 더 축소된 것으로 분석되며, 이는 국가 결정권의 약 1/5 수준이었던 것으로 나타난다.

제6차 교육과정(1992~1997)의 보통 교과는 공통 필수 과목과 각 과정별 필수 과목 및 선택 과목으

로 구분되었다. 이때 총 70단위를 구성하는 10개의 공통 필수 과목은 교육부가 결정하였으며, 총 106단위의 과정별 필수 과목은 시·도 교육청이 결정하며, 12단위의 과정별 선택 과목은 학교가 선택토록 하였다. 제5차 교육과정까지는 국가에서 거의 독점적으로 과목을 지정하고, 학교에 일부 과목의 선택권을 부여하였으나, 제6차 교육과정에서는 교육과정 의사결정의 분권화로 인하여 시·도 교육청의 과목 결정 권한이 신설 확대되면서, 학교의 결정권은 대폭 축소되었다고 할 수 있다.

제7차 교육과정(1997~)의 교과는 총 56단위에 이르는 10개의 국민 공통 기본 교과와 총 136단위의 선택 과목으로 구성되었다. 제7차 교육과정에서는 학생의 능력, 흥미, 적성, 진로를 고려하여 다양한 선택 과목들을 개설함으로써 선택 과목의 총수가 제6차의 60개 과목에서 제7차의 79개 과목으로 증가하였으며, 특히 교양 증진을 목적으로 하는 일반 선택 과목들이 다수 개설된 것이 특징적이다.

그리고 제7차 교육과정에서는 교육과정 편성·운영의 역할 분담이 확대되면서 학생이 과목을 선택할 수 있는 교육과정 체제를 도입하였다. 제6차 교육과정에서는 과목 선택의 주체가 교육부, 교육청, 학교로 삼원화되어 제시되었고, 일차적인 선택의 주체가 교육청이었다. 그러나, 제7차 교육과정에서는 과목 선택의 주체가 교육부, 교육청, 학교, 학생으로 사원화되었으며 일차적인 선택의 주체는 학생이 되었다(김재춘 외, 2001).

제7차 교육과정에서 교육부는 고등학교 1학년 국민 공통 기본 교과(56단위)를 지정하고, 시·도 교육청과 단위 학교가 고등학교 2, 3학년의 선택 과목에 배당된 136단위 중에서 각각 28단위 이상 지정할 수 있으며, 학생은 최대 50%까지 과목을 선택할 수 있게 되었다. 특히 제7차 교육과정에서는 전통적인 과정을 폐지하여, 특정 과정에 얽매임이 없이 학생이 자신의 능력, 적성, 진로 등에 따라 자유롭게 교과목을 선택하여 이수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다만, 학생의 진로 선택을 돕고, 계열성 있는 선택 과목의 이수를 위하여 학교는 필요한 과정을 설치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다. 이상에서 개관한 변천과정들 중 보통 교과 구분의 방식과 과목 결정의 주체 및 결정 단위수를 비교하면 <표 1>과 같다.

<표 1> 일반계 고등학교 보통 교과의 구조 및 과목 결정의 주체 비교

시기	편제표 상의 보통 교과 구분 방식		결정 주체	결정 단위 수(인문, 자연과정 중심)	일차적인 결정의 주체
제1차	필수 교과		국가	48단위	학교
	선택교과		학교	54~69단위	
제2차	공통 과목		국가 (문교부)	104단위	국가
	과정별 선택 과목		학교	90단위 이상	
제3차	필수 과목	지정	국가 (문교부)	112~132단위	국가
		선택	학교	32~42단위	
	과정별 선택 과목	지정	국가 (문교부)	18~28단위	
		선택	학교	22~36단위(자유선택포함)	
제4차	공통 필수 과목	지정	국가 (문교부)	62~76단위	국가
		선택	학교	10~18단위	
	과정별 선택 과목	지정	국가 (문교부)	60~76단위	
		선택	학교	30~38단위(자유선택포함)	
제5차	공통 필수 과목		국가 (문교부)	84	국가
	과정별 선택 과목	지정	국가 (문교부)	74~76단위	
		선택	학교	28~34단위(교양선택포함)	
제6차	공통 필수 과목		국가 (교육부)	70단위	시・도 교육청
	과정별 필수 과목		시・도 교육청	106단위	
	과정별 선택 과목		학교	12단위	
제7차	국민 공통 기본 교과		국가 (교육부)	56단위	학생
	선택 과목 (일반 선택+심화 선택)		시・도 교육청	28단위 이상	
			학교	28단위 이상	
			학생	최대 50%(68단위)	

<표 1>을 통해 알 수 있듯이, 최근 국가 교육과정의 개정이 거듭됨에 따라 고등학교 교과목의 결정 권한이 국가에만 집중되지 않고 분산되는 방향으로 전개되어 왔다. 제1차에서 제5차까지는 국가와 학교의 양 측에서 교과목을 결정하되 국가에 상당한 결정권이 있었고, 제6차에서는 과목 결정권이 국가, 시·도 교육청, 학교에 분산되면서 시·도 교육청에 상당한 결정권이 부여되었다. 제7차에서는 제6차에서의 과목 결정 주체를 더욱 확대하여 학생에게까지 과목의 결정권을 부여하였고, 특히 2, 3학년의 경우에는 교육부 지정 과목 없이 시·도 교육청과 학교, 학생이 과목을 선택하도록 하되, 학생은 최대 68단위까지 과목을 결정할 수 있도록 하여 학생의 선택권을 존중하고자 의도하였다. 교육부 지정 과목 없이 완전히 선택으로만 편성·운영되는 고 2, 3학년의 교육과정 편성 체제는 선택중심 교육과정이라 불리는 근거가 된다.

Ⅲ. 연구 방법

이 연구에서는 질문지 조사의 방법을 수행하였다. 조사 대상과 조사 내용, 자료 분석의 방법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1. 조사 대상

이 연구에서는 질문지 조사를 위하여 소속 교육청과 학교 규모를 고려한 2단계 유층 표집을 실시하였다. 2003년 10월을 기준으로 16개 시·도 교육청 산하 고등학교는 일반계 고등학교는 총 1,297개이다. 1차적으로 각 시·도 교육청별로 5개의 학교를 선정하고, 2차적으로 학교 규모를 고려하여 다양한 규모의 학교들이 일정 비율로 포함될 수 있도록 하여, 최종적으로 전체 학교의 약 6%에 해당하는 80개 학교를 표집하였다. 그리고 최종 선정된 80개교 2학년의 선택중심 교육과정을 담당하는 교육과정부장 교사들을 조사 대상으로 하였다. 각 교육청별로 표집 대상을 도표로 제시하면 <표 2>와 같다.

<표 2> 표집 대상

	각 시・도 교육청	계(16개 교육청)
학교 수	5개교	80개교
질문지 수	5부	80부

질문지는 한 학교당 1부씩 총 80부의 질문지를 우편으로 송부하였다. 2003년 12월 15일까지 54부가 우편으로 회수되어, 회수율은 약 67.5%로 나타났다. 최종 분석에 활용된 조사 대상을 배경 변인별로 도표화하면 <표 3>과 같다.

<표 3> 분석 대상 n(%)

학교 소재지	대도시	28(51.9)	학교 규모	소규모(17학급이하)	11(20.4)
	중・소도시	13(24.1)		중규모(18~29학급)	14(25.9)
	군・읍・면	13(24.1)		대규모(30~41학급)	20(37.0)
	계	54(100)		과대규모(42학급이상)	9(16.7)
				계	54(100)

2. 조사 내용

이 연구에서 사용한 질문지 조사 도구는 일반계 고등학교의 선택중심 교육과정의운영 실태를 파악할 수 있도록 제작되었다. 본 질문지는 선행 연구에 근거하여 연구진들이 1차 제작되었으며 총 5회의 수정 과정을 거쳤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연구자들의 대학원 강의를 수강하는 고등학교 교사들을 대상으로 예비조사를 실시하였으며, 예비 결과 분석을 통하여 조사도구를 수정하였다. 2003년 12월 당시 선택중심 교육과정은 고등학교 2학년에만 적용되고 있었기 때문에, 본 질문지는 2학년을 기준으로 제작되었다. 질문지의 문항 구성은 다음과 같다.

- 개설 과정 수
- 과목 결정 주체 및 각 결정 단위 수
- 학교의 지정 과목 결정 방식

· 심화 선택 과목의 학생 선택 방식 및 기회 수
· 학기당 이수 과목 수
· 선택 과목의 개설 현황
· 선택중심 교육과정 편성·운영상의 어려움

3. 자료 분석

이 연구에서는 일반계 고등학교 선택중심 교육과정의 전반적인 편성·운영 실태를 확인하기 위하여 각 문항에 대하여 빈도 분포와 χ^2검정을 실시하여 5% 수준에서 유의도를 확인하였다.

Ⅳ. 선택중심 교육과정의 운영 실태 분석

1. 개설 과정 수

2003학년도 2학년에 개설된 과정의 수를 분석한 결과, 2개의 과정을 개설한다는 응답이 66.0%로 가장 많았다. 이 때 개설 과정의 수는 지역이나 학교 규모에 따라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각각 $p < .01$). 지역별로는 대도시와 중·소 도시에서는 2개의 과정을 개설하는 경우가 가장 많았으며, 군·읍·면 지역에서는 1개의 과정을 개설하는 경우가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학교 규모별로는 소규모 학교에서 1개의 과정을 개설하는 경우가 가장 많았으며, 중, 대, 과대규모의 학교에서는 2개의 과정을 개설하는 경우가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대한 결과표는 <표 4>와 같다.

2. 과목 결정 주체 및 결정 단위 수

2, 3학년에 배정된 선택 과목의 총 136단위를 기준으로, 교육청, 학교, 학생의 과목 선택 이수 단위를 과정별로 분석한 결과, 교육청에서는 평균적으

<표 4> 2003년 2학년의 개설 과정 수

변인 \ 개설 과정수		1개	2개	3개	4개	5개	6개	7개이상	n	χ^2 (p)
전 체		8(15.1)	35(66.0)	5(9.4)	3(5.7)	1(1.9)	0(0.0)	1(1.9)	53(100)	
지역	대도시	0(0.0)	21(77.8)	3(11.1)	2(7.4)	1(3.7)	0(0.0)	0(0.0)	53(100)	27.537 (.002)
	중 · 소도시	1(7.7)	10(76.9)	2(15.4)	0(0.0)	0(0.0)	0(0.0)	0(0.0)		
	군 · 읍 · 면	7(53.8)	4(30.8)	0(0.0)	1(7.7)	0(0.0)	0(0.0)	1(7.7)		
학교 규모	소규모	8(72.7)	3(27.3)	0(0.0)	0(0.0)	0(0.0)	0(0.0)	0(0.0)	53(100)	45.982 (.000)
	중규모	0(0.0)	10(71.4)	3(21.4)	1(7.1)	0(0.0)	0(0.0)	0(0.0)		
	대규모	0(0.0)	17(85.0)	0(0.0)	1(5.0)	1(5.0)	0(0.0)	1(5.0)		
	과대규모	0(0.0)	5(62.5)	2(25.0)	1(12.5)	0(0.0)	0(0.0)	0(0.0)		

<표 5> 각 과정별 교육청/학교/학생의 과목 결정 이수 단위

결정 주체 \ 과정	교육청 결정					학교 결정					학생 선택				
	n	M	SD	최소	최대	n	M	SD	최소	최대	n	M	SD	최소	최대
인문 사회	23	31.6	4.9	28	48	23	63.9	8.8	44	80	23	40.4	10.1	26	64
자연 과정	22	31.6	5.0	25	48	22	64.6	8.9	40	78	22	39.6	9.6	26	64
예체능	3	37.3	10.1	28	48	3	64.0	2.0	62	66	3	34.7	8.1	26	42

로 약 31-37단위를 지정하며, 학교에서는 약 63-64단위를 지정하며, 학생들은 약 34~40단위를 선택할 수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에 관한 결과표는 <표 5>와 같다.

3. 학교 지정 과목의 결정 방법

일선 학교에서 학교 지정 과목을 어떤 방법으로 결정하는지를 분석한 결과, 학교 전체 교사 협의회나 교과부장 협의회에서 결정한다는 응답이 53.7%로 가장 많았다. 다음으로 학생의 요구를 조사하여 반영한다는 응답이 26.9%로 많았다. 이 때 지역이나 학교 규모에 따른 유의미한 차이는 나타나지 않았다(p> .05). 이러한 결과는 지역이나 학교 규모에 상관없이 학교 현장에서는 학생의 요구보다는 학교의 여건에 따라 과목을 지정하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이에 관한 결과표는 <표 6>과 같다.

4. 심화 선택 과목의 학생 선택 방식 및 기회 수

학생들에게 심화 선택 과목에 대한 선택권을 어떠한 형태로 제공하는지, 그리고 각 방식에 대한 기회의 수를 과정별로 분석한 결과, '두 과목 중 택1'의 형태를 약 3회 정도 제공하는 학교가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다음으로는 '세 과목 중 택1'의 기회를 1~2회 제공하는 학교가 많았다. 그러나 '네, 다섯 과목이상 중 선택'과 같이 선택의 폭을 넓게 제공하는 학교의 수는 소수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관한 결과표는 <표 7>과 같다.

<표 7> 심화선택과목의 학생선택 방식 및 선택 기회 수

		두 과목 중 택1	세 과목 중		네 과목 중			다섯과목 중				여섯 과목 이상 중 택
			택1	택2	택1	택2	택3	택1	택2	택3	택4	
인문사회과정	학교 수	42	20	5	7	4		3				4
	기회 수	3.2	2.0	1.6	1.3	2.0		1.0				2.0
자연과정	학교 수	35	16	9	3	10	6					3
	기회 수	2.9	1.6	1.4	1.3	1.2	1.0					2.3
예체능과정	학교 수	5	3									
	기회 수	3.0	2.7									

5. 학기당 이수 과목 수

2003년도 2학년 학생들이 이수하는 학기당 과목수(특별활동 제외)를 과정별로 분석한 결과, 평균 11.8~12.1과목을, 최소 10과목에서 최대 15과목까

<표 6> 학교 지정 과목의 결정 방법

		학생의 요구 조사 반영	학교전체교사협의회/교과부장협의회	학교의 건학이념/교육방침	기 타	n	X^2 (p)
전 체		16(29.6)	29(53.7)	2(3.7)	7(13.0)	54(100)	
지역	대도시	7(25.0)	15(53.6)	2(7.1)	4(14.3)	54(100)	4.967 (.548)
	중・소도시	3(23.1)	9(69.2)	0(0.0)	1(7.7)		
	군・읍・면	6(46.2)	5(38.5)	0(0.0)	2(15.4)		
학교 규모	소규모 (17학급이하)	6(54.5)	4(36.4)	0(0.0)	1(9.1)	54(100)	6.743 (.664)
	중규모 (18~29학급)	2(14.3)	8(57.1)	1(7.1)	3(21.4)		
	대규모 (30~41학급)	5(25.0)	12(60.0)	1(5.0)	2(10.0)		
	과대규모 (42학급이상)	3(33.3)	5(55.6)	0(0.0)	1(11.1)		

지 이수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관한 결과표는 <표 8>과 같다.

<표 8> 학기당 이수 과목 수

		2학년 1학기					2학년 2학기				
		n	M	SD	최소	최대	n	M	SD	최소	최대
과정	인문사회과정	54	11.9	.87	10	14	54	11.9	.87	10	14
	자연과정	47	12.2	.89	10	15	47	12.2	.89	10	15
	예체능과정	5	11.8	.84	11	13	5	11.8	.84	11	13

학기당 이수 과목 수를 줄이기 위해서는 과목들을 두 학기에 걸쳐 편성하지 않고, 한 학기로 편성하여 운영할 필요가 있다. 일반 선택 과목들 중 한 학기 단위로 편성되는 과목에 어떤 과목이 있는지를 분석한 결과, 국어생활은 3개 학교에서, 정보사회와 컴퓨터, 음악과 생활, 생태와 환경은 각 1개 학교에서만 한 학기 단위로 편성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심화 선택 과목들 중 한 학기 단위로 편성되는 과목들을 전체적으로 분석한 결과, 수학Ⅱ가 2개 학교에서, 그리고 독서, 문학, 미분과 적분, 확률과 통계, 물리Ⅰ, 화학Ⅰ, 생물Ⅰ, 영어Ⅰ, 영어

<표 9> 일반 선택 과목 중 개설 현황

	일반 선택 과목의 개설 현황							
	1순위		n(%)		2순위		n(%)	
인문사회군	①국어생활		41(77.4)		①국어생활		3(8.6)	
	②시민윤리		7(13.2)		②시민윤리		18(51.4)	
	③인간사회와 환경		5(9.4)		③인간사회와 환경		14(40.0)	
	계		53(100)		계		35(100)	
과학기술군	①실용수학		13(24.1)		①실용수학		10(26.3)	
	②생활과 과학		3(5.6)		②생활과 과학		17(44.7)	
	③정보사회와 컴퓨터		38(70.4)		③정보사회와 컴퓨터		11(28.9)	
	계		54(100)		계		38(100)	
예체능과목군	①체육과 건강		46(90.2)		①체육과 건강		3(8.1)	
	②음악과 생활		4(7.8)		②음악과 생활		24(64.9)	
	③미술과 생활		1(2.0)		③미술과 생활		10(27.0)	
	계		51(100)		계		37(100)	
외국어과목군	①독일어Ⅰ	6(11.3)	⑤일본어Ⅰ	44(83.0)	①독일어Ⅰ	8(18.6)	⑤일본어Ⅰ	7(16.3)
	②프랑스어Ⅰ	0(0.0)	⑥러시아어Ⅰ	0(0.0)	②프랑스어Ⅰ	5(11.6)	⑥러시아어Ⅰ	0(0.0)
	③스페인어Ⅰ	0(0.0)	⑦아랍어Ⅰ	0(0.0)	③스페인어Ⅰ	2(4.7)	⑦아랍어Ⅰ	0(0.0)
	④중국어Ⅰ	3(5.7)	계	53(100)	④중국어Ⅰ	21(48.8)	계	43(100)
교양과목군	①한문	37(69.8)	⑦생활경제	0(0.0)	①한문	6(12.2)	⑦생활경제	7(14.3)
	②교련	1(1.9)	⑧종교	0(0.0)	②교련	4(8.2)	⑧종교	1(2.0)
	③철학	1(1.9)	⑨생태환경	6(11.3)	③철학	3(6.1)	⑨생태환경	9(18.4)
	④논리학	0(0.0)	⑩진로직업	8(15.1)	④논리학	1(2.0)	⑩진로직업	13(26.5)
	⑤심리학	0(0.0)	⑪기 타	0(0.0)	⑤심리학	2(4.1)	⑪기 타	0(0.0)
	⑥교육학	0(0.0)	계	53(100)	⑥교육학	3(6.1)	계	49(100)

회화가 각각 1개 학교에서 한 학기 단위로 편성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6. 선택 과목의 개설 현황

일반 선택 과목들 중 가장 많은 학생들이 이수하는 과목의 순위를 분석한 결과, 인문사회과목군에서는 국어생활(77.4%), 과학기술군에서는 정보사회와 컴퓨터(70.4%), 예체능군에서는 체육과 건강(90.2%), 외국어 과목군에서는 일본어Ⅰ(83.0%), 교양 과목군에서는 한문(69.8%)으로 나타났다. 학생들이 두 번째로 많이 이수하는 과목을 분석한 결과, 각 과목군에서 시민윤리(51.4%), 생활과 과학(44.7%), 음악과 생활(64.9%), 중국어Ⅰ(48.8%), 진로직업(26.5%)으로 나타났다.

한편, 일반 선택 과목들 중에서 인문사회군과 과학기술군, 예체능군의 경우, 가장 많은 수의 학생들이 이수하는 1순위 과목에 응답한 학교의 약 절반 정도가 두 번째로 많이 이수하는 과목을 표 시하지 않았음을 볼 때, 각 교과군 내에서는 대체로 한 과목씩만을 개설하는 경우가 많음을 시사한다고 할 수 있다. 이에 관한 결과표는 <표 9>와 같다.

다음으로 심화 선택 과목들 중 가장 많은 수의 학생들이 이수하는 과목의 1순위를 분석한 결과, 국어과에서는 문학(64.2%)과 독서(26.4%), 도덕·사회과에서는 한국 근·현대사(26.0%)와 윤리와 사상(22.0%), 수학과에서는 수학Ⅰ(90.6%), 과학과에서는 화학Ⅰ과 생물Ⅰ(각각 37.7%)로 나타났다. 그리고 2순위로는 국어과에서는 작문(34.3%)과 독서(28.6%), 도덕·사회과에서는 한국 근·현대사(19.1%), 수학과에서는 수학Ⅱ(50.0%), 과학과에서는 생물Ⅰ(33.3%)이 가장 많이 개설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관한 결과표는 <표 10>과 같다.

7. 선택중심 교육과정 편성·운영상의 어려움

학교에서 선택 과목을 편성·운영하는 데 있어 가장 큰 어려움이 무엇인지를 분석한 결과, 교원 수

<표 10> 심화 선택 과목 중 개설 선호도

	심화 선택 과목의 개설 선호			
	1순위	n(%)	2순위	n(%)
국어과	①화법	1(1.9%)	①화법	3(8.6%)
	②독서	14(26.4%)	②독서	10(28.6%)
	③작문	2(3.8%)	③작문	12(34.3%)
	④문법	2(3.8%)	④문법	5(14.3%)
	⑤문학	34(64.2%)	⑤문학	5(14.3%)
	계	53(100.0%)	계	35(100.0%)
도덕·사회과	①윤리와 사상	11(22.0%)	①윤리와 사상	4(8.5%)
	②전통 윤리	3(6.0%)	②전통 윤리	0(0.0%)
	③한국 지리	9(18.0%)	③한국 지리	7(14.9%)
	④세계 지리	2(4.0%)	④세계 지리	3(6.4%)
	⑤경제 지리	1(2.0%)	⑤경제 지리	1(2.1%)
	⑥한국 근·현대사	13(26.0%)	⑥한국근·현대사	9(19.1%)
	⑦세계사	3(6.0%)	⑦세계사	1(2.1%)
	⑧법과 사회	2(4.0%)	⑧법과 사회	2(4.3%)
	⑨정치	2(4.0%)	⑨정치	7(14.9%)
	⑩경제	0(0.0%)	⑩경제	6(12.8%)
	⑪사회·문화	4(8.0%)	⑪사회·문화	7(14.9%)
	계	50(100.0%)	계	47(100.0%)
수학과	①수학Ⅰ	48(90.6%)	①수학Ⅰ	0(0.0%)
	②수학Ⅱ	3(5.7%)	②수학Ⅱ	19(50.0%)
	③미분과 적분	1(1.9%)	③미분과 적분	9(23.7%)
	④확률과 통계	1(1.9%)	④확률과 통계	10(26.3%)
	⑤이산 수학	0(0.0%)	⑤이산 수학	0(0.0%)
	계	53(100.0%)	계	38(100.0%)
과학과	①물리Ⅰ	7(13.2%)	①물리Ⅰ	5(10.4%)
	②화학Ⅰ	20(37.7%)	②화학Ⅰ	12(25.0%)
	③생물Ⅰ	20(37.7%)	③생물Ⅰ	16(33.3%)
	④지구과학Ⅰ	2(3.8%)	④지구과학Ⅰ	6(12.5%)
	⑤물리Ⅱ	1(1.9%)	⑤물리Ⅱ	1(2.1%)
	⑥화학Ⅱ	2(3.8%)	⑥화학Ⅱ	5(10.4%)
	⑦생물Ⅱ	1(1.9%)	⑦생물Ⅱ	3(6.3%)
	⑧지구과학Ⅱ	0(0.0%)	⑧지구과학Ⅱ	0(0.0%)
	계	53(100.0%)	계	48(100.0%)

부족이 50.0%로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는 대학입학시험과의 괴리 22.2%, 시설 부족 20.4%로 나타났다. 이 때 지역별, 학교 규모별 유의미한 차이는 나타나지 않았다($p > .05$). 이러한 결과는 지역이나 학교 규모에 상관없이 학교에서 선택중심 교육과정을 편성·운영하는 데에는 교원의 수 부족이 가장 큰 문제점인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이에 관한 결과표는 <표 11>과 같다.

Ⅴ. 논의 및 결론

이 절에서는 앞 절에서 분석한 일반계 고등학교

<표 11> 선택중심 교육과정 편성·운영상의 어려움

		안내자료 부족	교원수 부족	시설 부족	교원의 인식부족	학부모/학생의 인식부족	교원 연수부족	대학입학시험과의 괴리	수강신청 프로그램 개발 및 관리문제	계	χ^2 (p)
전 체		0(0.0)	27(50.0)	11(20.4)	0(0.0)	1(1.9)	0(0.0)	12(22.2)	3(5.6)	54(100)	
지역	대도시	0(0.0)	11(39.3)	5(17.9)	0(0.0)	0(0.0)	0(0.0)	9(32.1)	3(10.7)	54(100)	10.959 (.204)
	중·소도시	0(0.0)	8(61.5)	4(30.8)	0(0.0)	0(0.0)	0(0.0)	1(7.7)	0(0.0)		
	군·읍·면	0(0.0)	8(61.5)	2(15.4)	0(0.0)	1(7.7)	0(0.0)	2(15.4)	0(0.0)		
학교 규모	소규모	0(0.0)	8(72.7)	1(9.1)	0(0.0)	0(0.0)	0(0.0)	2(18.2)	0(0.0)	54(100)	10.571 (.566)
	중규모	0(0.0)	8(57.1)	2(14.3)	0(0.0)	0(0.0)	0(0.0)	3(21.4)	1(7.1)		
	대규모	0(0.0)	6(30.0)	7(35.0)	0(0.0)	1(5.0)	0(0.0)	4(20.0)	2(10.0)		
	과대규모	0(0.0)	5(55.6)	1(11.1)	0(0.0)	0(0.0)	0(0.0)	3(33.3)	0(0.0)		

선택중심 교육과정의 운영 실태에 근거하여 각 쟁점별로 논의하고 개선 방안을 제안하고자 한다.

1. 논의

가. 제한된 수의 과정 개설

선택중심 교육과정이 도입됨에 따라 일반계 고등학교에서 종래 운영되던 '인문·사회 과정', '자연 과정', '직업 과정'의 엄격한 구분은 폐지되고, 제7차 교육과정에서는 특정 과정에 얽매임이 없이 학생이 자신의 능력, 적성, 진로 등에 따라 자유롭게 교과목을 선택하여 이수할 수 있도록 하였다. 따라서 학교에 따라 어문과정, 인문과정, 자연과정을 설치·운영하거나, 인문·사회과정, 자연과정, 공학과정을 설치·운영하거나, 인문·사회과정, 자연과정, 예체능과정 등 다양한 종류의 과정을 설치·운영할 수 있게 되었다.

본 연구의 결과, 2개의 과정을 개설한 경우가 압도적으로 많았다. 소경희(2002)의 연구에 따르면, 2개 과정을 개설한 학교의 수가 가장 많았지만, 3~4개 과정을 설치한 학교와 5개 과정 이상을 설치한 학교의 수도 적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학교에서의 실제 운영 실태를 조사한 것이 아니라 실행전에 개발된 편제표 만을 분석하여 파악하였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된다. 실제 운영실태를 조사한 류방란 외(2003)의 연구에서도 2개 과정을 개설하는 학교가 77.0%로 압도적으로 많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강영석(2002)의 연구에서도 대부분의 학교가 인문과정과 자연과정을 중심으로 과정을 설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개 과정을 개설하는 학교가 가장 많고 3개 이상의 과정을 개설한 학교의 수가 극히 적게 나타난 본 연구의 결과는 선택중심 교육과정이 적용된 후에도 대부분의 학교가 여전히 종래의 과정과 비슷한 수의 과정을 설치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특히 소규모 학교의 72.7%, 군읍면에 소재한 학교의 53.8%는 1개 과정만을 편성하고 있었는데, 이들 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들은 모두 같은 과정을 이수하여야만 하여, 학생들이 자유로이 자신의 과정을 만들어가기란 어려울 수 밖에 없는 것으로 분석된다. 그리고 42학급 이상인 과대규모 학교 중에서 2개 과정만을 개설한 학교도 62.5%에 이르러 학생들의 과정 이수는 매우 제한된 것으로 나타난다.

학교에서 다양한 과정을 개설하지 않는 데에는 다음의 두 가지 이유를 들 수 있다. 첫째, 2005 대학수학능력시험(이하 대수능)과 대학입시제도에 비추어 볼 때, 다양한 과정 개설의 필요성이 그리 크지 않기 때문이다. 2005 대수능에서는 응시 영역과 과목을 선택할 수 있도록 허용하였기 때문에, 학교에서는 대수능에 응시할 영역과 해당 과목들을 중심으로 교육과정을 편성하는 것이 더욱 절실한 과제가 되어 버렸다. 이는 학교의 특색이나 학생들의 진로에 부합하는 다양한 과정을 개설하는 데 대한 학생이나 학교의 요구를 축소시킨 한 요인

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 본 연구의 결과에서도 선택중심 교육과정을 편성·운영하는 데 어려움으로 대학입학시험과의 괴리(22.2%)가 작용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따라서 학교에서 학생들의 능력, 적성, 진로에 따라 다양한 과정을 개설·운영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과정 개설의 요구를 확대시킬 수 있는 대학수학능력시험과 대학입시제도의 개편이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

둘째, 다양한 과정을 개설하여 과정 간의 차이를 분명히 할 수 있는 만큼의 교과목 편성이 어려운 점이 있다. 과정의 수가 아무리 많아도 각 과정 내에 편성된 교과목들 간에 실질적인 차이가 없다면, 그것은 개설 과정의 수만 늘린 것에 불과하다고 할 것이다. 예컨대, 자연과정, 이공과정, 과학기술과정, 과학과정, 자연이공과정을 개설하고 이들 간의 차이를 부각시키기 위하여 각 과정별로 선택 과목들을 달리 편성하려고 하여도 국가 교육과정에 제시된 선택 과목 수의 제한으로 인하여 각 과정별로 과목들을 다양하게 편성·운영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을 수 밖에 없다. 따라서 각 단위 학교에서 다양한 과정을 개설하고 과정에 따라 다양한 교과목들을 편성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단위 학교에서 선택 과목을 자체 개발할 수 있는 체제를 구축하거나 아니면 보다 풍부한 선택 과목들의 목록을 국가가 제시해 줌으로써 개설하고자 하는 과정들간의 과목들의 차이를 보다 확대할 수 있는 가능성을 높일 필요가 있다. 또한 이수 단위도 과목별이 아닌 교과별 최저 이수 단위 정도만 규정하여 학교에서 자율적으로 과정에 따라 과목별 단위를 조절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나. 제한된 수의 과목 선택

제7차 교육과정에서는 학생에게 최소 28단위 이상 최대 68단위까지 과목을 선택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다. 본 연구의 결과, 선택 과목 136단위를 기준으로 교육청에서는 평균 약 31~37단위, 학교에서는 평균 63~64단위, 학생은 평균 34~40단위의 선택권을 발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결과는 학생 선택 단위수를 높게 배정한 도계고등학교(2000)의 연구 결과와는 일치하지 않으나, 최근에 수행된 연수고등학교(2001), 양운고등학교(2002), 강영석(2002)의 결과와 일치하는 것이다.

학교 여건을 고려하지 않고 학생 선택을 무조건 많이 제공하는 것 보다는 처음에는 적정 단위 수(약 30단위)의 학생 선택을 제공한 다음, 교육 여건이 개선되고 선택중심 교육과정 운영이 정착되면서 학생 선택을 점진적으로 늘려가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점(김재춘 외, 2001)에서, 최저 학생 선택 수준인 28단위를 조금 상회한 34~40단위의 학생에 의한 과목 선택권은 양적으로는 상당히 확보된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그런데, 학교에서 과목을 선택(지정)할 때 학생의 요구를 조사하여 반영하였다면, 이는 넓은 의미에서 학생의 과목 선택으로도 간주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본 연구의 결과에 따르면, 학교 지정 과목은 학생의 요구를 반영하여 결정되는 경우(26.9%)보다는 학교 전체 교사 협의회나 교과부장 협의회에서 결정되는 경우(53.7%)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학생이 과목을 선택할 수 있는 방식을 분석한 결과, '두 과목 중 택1'의 기회가 3회 정도 제공되는 경우가 많았으며, '세 과목이나 네 과목 이상 중에서 선택'할 수 있는 기회는 많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제7차 교육과정의 선택중심 교육과정 운영 과정에서는 학생의 과목 선택권이 양적으로 상당 부분 확보되어 있지만, 학교 선택 과목을 지정할 때 학생의 요구를 반영하는 비율은 상대적으로 낮으며, 또한 학생들이 과목을 선택할 수 있는 폭도 상당히 제한되어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학교의 여건을 고려할 때, 학교에서 학생의 요구에 따라 개설할 수 있는 과목의 수에는 한계가 있을 수 밖에 없다. 따라서 무리하게 학생의 선택권을 보장해 줄 수는 없겠지만, 점진적으로 학생들의 선택권을 확대해 나갈 필요는 있다고 본다. 즉, 학생 선택의 단위수를 점진적으로 늘려가는 동시에, 학교 지정 과목을 결정하는 데 있어 학생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함으로써 학생의 선택권을 더욱 확대하려는 노력을 기울이면서 순차적으로 '3과목 중 택1' 이나 '4과목 중 택2' 와 같은 선택의 방식을 좀 더 많이 도입하여 학생들에게 더 넓은 선택의 폭과 기회를 제공하도록 노력할 필요가 있다.

다. 과다한 학기당 이수 과목 수

제7차 교육과정 지침에는 학기당 이수 과목 수를 10개 내외로 편성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본 연구의 결과 평균 11~12과목씩을 이수토록 하는 경우가 많았는데, 특히 학기당 14~15과목을 편성하는 학교도 있은 것으로 나타났다. 학기당 편성 과목 수가 많다는 것은 학생들의 입장에서는 학습 부담이 많다는 것을 뜻한다. 그리고 한 학기에 많은 과목을 가르친다는 것은 과목별 주당 수업 시수가 적다는 것을 의미하며, 수행 중심의 수업이나 심층 수업이 불가능함을 뜻한다(김재춘 외, 2001).

이렇듯 학기당 이수 과목의 수가 많은 데에는 과목을 두 학기에 걸쳐서 편성·운영하기 때문이다. 4단위 과목을 1학기에 두 시간, 2학기에 두 시간씩으로 나누어 편성하게 되면, 학기당 이수 과목 수를 줄이기가 어려워진다. 본 연구의 실태 분석에서 나타났듯이, 한 학기에 이수하도록 편성된 과목의 수는 매우 적었다. 국어 생활이 세 학교, 수학Ⅱ가 두 학교, 정보사회와 컴퓨터, 음악과 생활, 생태와 환경, 독서, 문학, 미분과 적분, 확률과 통계, 물리Ⅰ, 화학Ⅰ, 생물Ⅰ, 영어Ⅰ, 영어회화가 각각 한 학교에서만 한 학기에 이수하도록 편성되었고, 대부분의 학교들에서는 4단위 교과목 조차도 두 학기에 걸쳐서 편성·운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물론 학교 교육과정을 이렇게 편성하여 운영하는 데에는 대수능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목적도 있다.

그러나 학기당 이수 과목 수를 줄임으로써 학습자들의 학습 부담을 경감시키고, 각 교과에 대한 학생들의 집중 이수를 가능하도록 하기 위해서는 4~6단위 과목의 경우 가급적 한 학기에 이수할 수 있도록 편성하고, 8단위 짜리 과목도 한 학기에 마쳐질 수 있는 방식으로 교육과정을 편성할 필요가 있다. 이때 매 학기 모든 과목을 한 학기에 이수 가능하도록 편성하기 보다는 학기당 이수 과목이 10개 이하가 될 수 있도록 필요한 과목만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라. 교과목에 대한 획일적인 개설 현황

선택중심 교육과정은 교과목 결정의 권한을 지역 및 학교, 학생 단위로 많이 이양하였기 때문에, 선택중심 교육과정이 의도한 바대로 운영된다면 학교 교육은 지역마다, 학교마다, 혹은 동일 학교 내 학생마다 다양한 양상을 띨 수 있게 된다. 본 연구에서 선택 과목들에 대한 개설 현황을 분석한 결과, 각 학교 내에서 가장 많은 수의 학생들이 이수하는 1순위 과목들은 몇몇 교과 영역을 제외하고는 대부분의 학교에서 거의 동일한 과목인 것으로 나타났다.

일반 선택 과목에 대한 개설 선호도를 분석한 결과, 국어생활(77.4%), 정보사회와 컴퓨터(70.4%), 체육과 건강(90.2%), 일본어Ⅰ(83.0%), 한문(69.8%)은 많은 학교들에서 거의 공통적으로 개설되고 있었다. 그리하여 인간사회와 환경, 생활과 과학, 미술과 생활, 그리고 일본어를 제외한 제2외국어들과 한문을 제외한 교양 과목들에 대한 이수의 기회는 매우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심화 선택 과목에 대한 개설 현황을 분석한 결과도 각 교과 내에서 1, 2개의 과목들이 공통적으로 선호되고 있을 뿐, 그 이외 나머지 과목들의 개설 가능성은 저조하거나 희박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특히 러시아어, 아랍어, 전통 윤리, 경제, 이산 수학, 지구 과학 Ⅱ를 이수하는 학생이 많은 학교는 한 학교도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렇듯 선택중심 교육과정의 교과목들이 지역마다, 학교마다 다양한 양상으로 편성·운영되지 못하고 특정 과목들만이 주로 선호되고, 또한 공통적으로 선호되지 않는 과목이 존재하는 데에는 다음과 같은 이유가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첫째, 일부 선택 과목의 교원수급 조절이 용이하지 않기 때문이다. 본 연구의 조사에서도 선택중심 교육과정을 편

성·운영하는 데 있어 교원 수의 부족이 가장 큰 어려움(50.0%)인 것으로 분석되었다. 기존의 교사진으로 선택중심 교육과정을 운영하여야 하는 상황 속에서는 선택의 범위가 좁을 수 밖에 없다. 따라서 각 교과목을 운영하는 데 필요한 교원이 충실하게 공급될 필요가 있다. 또한 선호도가 낮은 과목들에 대한 지원 방안을 마련하거나 해당 교과에서 발생할 수 있는 과원 교사들의 활용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둘째, 학생들의 요구나 희망과는 무관한 과목들이 국가 교육과정 문서에 선택 과목으로 포함되어 있기 때문이다. 몇몇 과목들이 전혀 선호되지 않고 있다는 사실은 앞으로 선택 과목을 편성할 때 학생들의 요구나 희망, 그리고 능력, 적성, 진로 등을 적극 고려하여야 함을 시사한다.

2. 종합 논의: 결론

이 글에서 연구자는 제7차 교육과정에서 일반계 선택중심 교육과정이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지를 분석한 뒤, 이에 근거하여 학생의 선택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는 동시에 다양한 선택 과목의 운영을 위해 필요한 방안들을 탐색하였다. 선택중심 교육과정은 종래의 고등학교 교육과정과는 달리 과정별 필수 과목 없이 선택 과목으로만 구성되어 있고 그 선택의 주체가 교육청, 학교, 학생으로 삼원화되었다는 점에서 매우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연구의 결과, 선택중심 교육과정은 교육청, 학교, 학생의 선택에 따라 지역마다, 학교마다, 학생마다 다양한 방식으로 운영될 것을 강조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학교 현장에서는 교육과정의 취지가 충분히 실현되지 못하고 있었다. 제6차 교육과정기와 동일하게 거의 두 개의 과정만이 개설되고 있으며, 학생의 선택권이 양적으로 일정 수준 확보되어 있기는 하지만 학교의 선택 과목을 결정할 때 학생의 요구를 반영함으로써 학생의 선택권을 확대하려는 노력은 적은 편이며, 학생들에게 제공하는 과목 선택의 폭 또한 협소한 실정이다. 또한 각 학교에서 선호되는 과목의 종류도 다양하지 않고 지역 간에 획일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이 연구에서는 고등학교 선택중심 교육과정의 보다 충실한 운영을 위해 다음과 같은 개선 방안을 탐색적으로 제안하였다.

첫째, 학교에서 학생들의 능력, 적성, 진로에 따라 다양한 과정을 개설·운영할 수 있기 위해서는 다양한 과정 개설의 요구를 확대시킬 수 있는 대수능과 대입 제도가 마련되어야 한다. 둘째, 학교에서 다양한 과정과 다양한 과목을 개설할 수 있기 위해서는, 자율적으로 과목을 설치하고 과목별 단위를 조절할 수 있는 권한이 학교에 부여되어야 한다. 셋째, 학생의 과목 선택권을 보장하기 위하여 학교에서는 학생의 선택 단위수를 점진적으로 늘려가는 동시에, 학교 지정 과목을 결정하는 데 있어 학생의 의견을 반영함으로써 학생의 선택권을 더욱 확대하려는 노력을 기울이면서 순차적으로 학생들에게 더 넓은 선택의 폭과 기회를 제공할 필요가 있다. 넷째, 학생들의 학습 부담을 경감시키고, 학생들의 집중 이수를 가능하게 하기 위하여 학기당 이수 과목 수를 줄일 필요가 있다. 다섯째, 교과목에 대한 획일적인 개설 현황을 개선하기 위하여 필요한 수의 교원이 충실하게 공급되어야 하며, 선호도가 낮은 과목들에 대한 지원 방안 및 과원 교사의 활용 방안이 마련되어야 한다. 또한 국가 교육과정을 개발할 때 학생들의 요구나 희망, 진로 등을 적극 반영하여 선택과목을 편성하여야 한다.

이 연구는 다음의 몇 가지 점에서 한계를 가진다. 이와 관련하여 후속 연구를 제안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이 연구는 학생이 과목을 선택하는 권한의 행사 여부와 선택의 양을 파악하는 데 초점을 맞추어 분석하였다. 학생의 진정한 과목 선택권은 국가가 정해 놓은 다양한 과목들 가운데 학생들에게 일부 희망 과목을 선택하는 권한 행사나 선택의 양에 의해 보장된다고 보기 어렵다. 선택중심 교육과정 운영의 의미는 학생이 정말로 자신의 관심, 적성과

진로 등에 맞는 과목들을 선택하여 이수함으로써 유의미한 학습 경험이 이루어질 수 있느냐 하는 데 있다고 본다. 따라서 학생들이 단지 과목을 직접적으로 선택할 수 있느냐 없느냐 하는 논의를 넘어, 교육 전체의 맥락에서 학생들이 자신들에게 의미 있는 방식으로 교과목을 선택하여 이수할 수 있는 체제 연구를 수행할 필요가 있다.

둘째, 이 연구는 선택중심 교육과정의 충실한 운영에 필요한 조건이 무엇인지를 탐색하는 데 초점을 맞추어 수행되었다. 그리하여 교원 수급의 문제가 해결될 필요가 있음을 강조하였기는 하나, 이를 해결하기 위한 구체적인 전략은 제시하지 않았다. 이와 관련하여 교원의 양성 및 자격 제도의 개선 방안에 관한 연구를 수행할 필요가 있다. 다양한 선택 과목의 편성과 운영은 늘 상치 교사와 과원 교사의 문제를 유발한다. 따라서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현행과는 다른 교원 양성, 자격, 배치 및 활용 체제를 연구할 필요가 있다.

참고 문헌

강영석, 일반계 고등학교 선택중심 교육과정의 편성 방안 연구, 교육과정평가연구, 5(1), pp.1～19, 2002.

강원도계고등학교, 강원도계고등학교 교육과정 편성·운영 모형, 2000.

강현석, 제7차 선택 중심 교육과정에 따른 균형적인 학습기회체제 설계모형 개발, 교육학연구, 41(1), pp.195～224, 2003.

강화여자종합고등학교, 제7차 교육과정에 따른 학생 교과목 선택제 이수모형 연구, 2000.

공주고등학교, 학생 선택중심 교육과정 편성에 관한 연구, 1998.

교육부, 초·중·고등학교 국가 수준의 교육과정 기준-총론-(1954～1997), 서울: 대한교과서 주식회사, 1999.

김삼곤·주수동·김성재, 제 7차 수산·해운계 고등학교 교육과정의 기본 구성 방향, 수산해양교육연구 제10권 2호, pp.115～128, 1998.

황희숙, 정보화 사화의 교육 패러다임으로서의 구성주의(본질과 교육적 적용), 수산해양교육연구 제10권 1회, pp.110～125, 1998.

김삼곤, 수산·해운계 고등학교 제 7차 교육과정 각론 개정연구, 수산해양교육연구 제12권 1호, pp. 83～97, 2000.

교육인적자원부, 선택중심 교육과정 편성·운영의 실제. 고등학교 교육과정 편성·운영 자료(Ⅳ), 2002a.

교육인적자원부, 제7차 교육과정 적용실태 조사결과, 2002b.

김수천 외, 강원도 일반계 고등학교 제7차 교육과정 편성·운영방안, 강원대학교 교육연구소, 2001.

김인식·최병옥 외, 제7차 고등학교 교육과정 편성·운영 모형 개발, 경상남도 교육청 정책연구과제, 2000.

김재춘·박소영·이상신·이상승·길만철, 일반계 고등학교 선택중심 교육과정의 효율적인 적용방안 연구, 2001년도 교육과정 후속지원 연구과제 답신보고, 2001.

김재춘·박소영·김병주, 제7차 교육과정의 문제점 및 개선 방안 연구(Ⅱ), 2003년도 교육인적자원부 위탁 교육과정 후속지원 연구과제 답신보고, 2003.

류방란·박상철, 제7차 교육과정 운영의 실제 분석과 과제, 한국교육개발원 교육정책연구본부 기본과제 심의본, 2003.

부산부흥고등학교, 부산부흥고등학교 선택중심 교육과정 시범 운영 모형, 2000.

소경희, 고등학교 선택중심 교육과정에 제시된 '학생 선택권'의 의미와 구현 방안 탐색, 교육과정연구, 20(4), pp.87～106, 2002.

양운고등학교, 일반계 고등학교 선택중심 교육과정의 편성과 운영, 2002.

양재고등학교, 학습자 중심의 교육과정 편성·운영에 관한 실험 연구, 1997.

연수고등학교, 선택중심 교육과정의 효율적인 편성·운영 방안, 2001.
장유고등학교, 일반계 고등학교 선택중심 교육과정 편성운영에 관한 연구, 2003.
주문진고등학교, 제7차 교육과정 시행을 위한 학생 선택중심 교육과정 운영, 2000.
허경철·박순경·이화진·소경희·유승연, 일반계 고등학교 선택중심 교육과정 편성·운영 모형 개발 연구, 한국교육과정평가원 연구보고 CRC 2002-1.
홍후조, 제7차 교육과정에 따른 일반계 고등학교 선택 교육과정의 편성과 운영상의 이해와 오해-학교간 교육 프로그램의 역할 분담과 학생의 전략적 배치를 중심으로-, 교육과정연구, 19(1), pp.197～229, 2001.
홍후조·박순경·김성숙·소경희·김진숙, 제7차 교육과정에 따른 일반계 고등학교 교육과정 실행 방안 연구, 한국교육과정평가원, 1999.